

제주 바다와 문학*

김영화**

차례

1. 머리말
2. 구비문학 속의 바다
3. 고전문학 속의 바다
4. 현대문학 속의 바다
5. 맺음말

1. 머리말

제주도는 4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바다와 더불어 살아왔다. 본토와의 내왕은 배를 이용했다. 날씨가 좋아 무사히 갔다오는 경우도 있었으나 풍랑을 만나 목숨을 잃거나 구사일생으로 살아온 경우도 있다.

그런 한편 바다에 나아가 해조류를 채취하고 고기를 잡으면서 살아왔다. 산업화되기 이전인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제주도의 주산업은 농업과 어업이었다. 따라서 제주도민들은 농사를 지으면서 살거나, 바다에

* 이 논문은 2000년도 제주대학교 발전기금 연구교수 지원계획에 의하여 연구되었다.

**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서 해산물을 채취하면서 살아야 했다. 순수농민도 있고, 순수어민도 있었지만 半農半漁의 형태가 상당부분을 차지했다. 그만큼 바다와 제주도민들과는 깊은 관계가 있다. 그것은 그만큼 바다 체험이 풍부하다는 것이다.

문학은 인간의 체험한 것을 기록(또는 이야기)한다. 따라서 본토를 내왕하다가 바다에서 체험했던 일들을 기록한 문학이 있는가 하면 바다에서 해조류를 채취하거나 고기를 잡으면서 생활했던 애환을 이야기하거나 노래한 문학도 있다. 이런 문학에 대한 연구는 아직은 단편적이다. 작품을 개별적으로 살핀 글들은 없지 않지만 종합적으로 살핀 글은 볼 수 없다.

이 글의 목적은 제주 바다에서 체험했던 일들을 기록한 문학들을 구비문학에서부터 현대문학에 이르기까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작품을 골라 그 내용은 어떠한지 그 특징은 어떠한지, 그리고 문학적 가치는 무엇인지 살펴보려는 데 있다.

2. 구비문학 속의 바다

구비문학인 설화와 민요는 제주도 농어민들의 세계를 보여주는 문학이다. 제주도의 기층민중들인 이들은 그들이 살아오면서 체험했던 일, 또는 상상했던 일들을 문자로 기록하기 전에 입으로 전해왔거나 노래해왔다. 바다에 대해서도 체험했거나 상상했던 일들을 설화나 민요의 형태로 전해 왔다.

2-1. 제주도에는 설화가 많다. 이런 설화는 口傳돼온 것이다. 이렇게 구전되는 설화가 20세기에 들어와 학자들이 수집해서 문자로 기록한 자료들이 나왔다. 그런 자료들 가운데 눈여겨볼 만한 자료는 현용준의 『濟

州島神話』(1976)와 『濟州島傳説』(1976),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에서 펴낸 『濟州說話集成(1)』(1985), 제주도에서 펴낸 『濟州島傳説誌』(1985), 진성기의 『제주도전설』(1991) 등이 있다.

이 자료들에 나온 설화들을 읽어보면 바다와 관련된 것들도 적지 않다. 그런데, 과거의 제주도 사람들의 바다에 대한 인식은 상상을 통해 인식하는 것과 체험을 통해 인식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상상을 통한 인식은 不可視의 세계에 대한 것이고, 체험을 통한 인식은 可視의 세계에 대한 인식이다.

제주도에 전해 내려오는 「삼성신화」, 「산호잠녀전설」, 「세화당백죽도본풀이」, 「송당본풀이」, 「칠성본풀이」, 「차사본풀이」, 「이여도전설」 등은 체험의 세계라기보다 상상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다.

이 설화들 가운데 불가시의 세계 - 곧 상상의 세계는 두 가지 세계로 나뉜다. 이상향으로 설정한 것과 저승으로 설정한 것이 그것이다. 「산호잠녀전설」과 「세화당백죽도본풀이」는 이상향으로 설정되어 있고 「송당본풀이」, 「칠성본풀이」, 「차사본풀이」는 저승의 세계로 설정되어 있다.¹⁾

「산호잠녀전설」에는 海底의 세계가 병으로부터 고통받는 일이 없는 세계라고 되어 있다. 병이 없는 세계란 이상세계다. 현대처럼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옛날에는 질병은 무서운 것이고 죽음으로 이르는 길이기도 했다. 따라서 질병이 없는 세계란 이상세계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세화당백죽도본풀이」는 비와 바람에 시달릴 일이 없는 세계라는 것이다. 그리고 장마와 가뭄에 시달릴 걱정이 없는 세계로 되어 있다. 말을 바꾸면 자연의 재해가 없는 세계다. 옛 사람들에게 폭풍이나 가뭄, 그리고 홍수 등은 그들의 삶에 큰 재앙을 가져 왔다. 그래서 그런 재앙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이런 재앙이 없는 세계는 이상세계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신화들에서는 바다를 이상 세계와 연결시키고 있다.

1) 현용준, “고대 한국민족의 해양타계관” 『무속신화와 문헌신화』(집문당, 1992), 449~473쪽.

그러나 「송당본풀이」는 石函에 불효를 저지른 아들을 담아서 죽으라고 바다에 띄워버리는 이야기이고, 「칠성본풀이」는 不貞한 딸을 석함에 담아 바다에 띄워버리는 이야기다. 石函이라는 것은 오늘날 棺과 비슷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죽은(혹은 죽어야 할) 사람을 관에 담아 바다에 던져버렸다는 것이다. 바다는 곧 죽음의 세계와 연결된다. 그것은 제주도 사람들의 체험과도 관계가 있다. 생업으로 고기잡이를 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래서 바다에 나갔다가 죽는 일이 많았던 제주도 사람들은 바다를 두려워하고 죽음의 세계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

제주도 전설 가운데 「절부암」은 고기 잡으러 바다에 나갔다가 젊은 여부가 죽어서 돌아왔다는 이야기이고, 「김덕이 여」는 바다에 나갔던 잠녀가 죽을 고비에 처했을 때, 바다 밑에 솟아있는 바위(여)에 의지해서 살아 왔다는 이야기다. 이들 전설은 바다를 죽음과 연결시킨 이야기다.

죽음과 이상세계가 혼합된 전설이 있는데 그것이 「이여도전설」이다. 고기잡이하려고 배를 탔다가(혹은 진상품을 싣고 배에 탔다가) 풍랑에 배가 파선되어 남편이 돌아오지 못했다. 풍랑에 죽은 것이다. 그러나 뒤에 남은 아내는 그 죽음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이상세계인 '이여도'에 가서 잘 살고 있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은 것이 이 전설이다.

설화에 나오는 바다는 이상향도 없지 않지만 '죽음'의 이미지가 강하게 지배하는 것이 압도적이다. 제주도 사람들은 살아오면서 바다에서 죽는 일을 많이 목격했고 그것은 그들의 체험이기도 했다. 그런 체험들이 바다를 죽음과 연결짓는 이야기를 많이 만들어냈을 것이다.

2-2. 제주도에는 민요가 많이 전해 내려온다. 이런 민요들을 수집해서 문자로 기록한 자료들도 나왔다. 그런 자료 가운데 진성기의 『南國의 民謠 - 濟州島民謠集』(1958년 초판, 1991년 7판)과 김영돈의 『濟州島民謠研究 上』(1965년)은 대표적인 것들이다.

제주도 민요의 특징은 노동요가 많다. 제주도민들은 일하면서, 혹은 일을 하고 난 후 쉬면서 노래를 불렀는데 그것이 노동요다. 대체로 노동요

는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밭에서 일하면서 부른 노래이거나 곡식을 장만하면서 부른 노래들이고, 둘째는 바다에서 잠수 작업을 하거나 작업 후에 쉬면서 그들의 심경을 노래한 것들이다.

바다와 관련되는 민요는 대부분 잠수 작업과 관계가 있다. 그 가운데 몇 작품을 골라 바다에서의 체험이 어떻게 나타나 있는가를 살펴본다.

(a) 열 다섯에 물질 배완
 쭈물호술 상급 타고
 왼 착 손에 태왁 매고
 노신 비창 허리에 차고
 한강 바당 건드단 보난
 줌복 구쟁기 하영 서도
 내 숨이 바뀐 몬호더라²⁾

(b) 요 바당이 요 물에 들영
 줌복 구쟁기 즈물야당
 혼푼 두푼 매왕그네
 돈 만랑을 맹글아 놓건
 날랑 죽건 그 돈일랑
 지와로랑 봉틀 싸꼭
 은전으로랑 제절을 놓꼭
 엽전으로랑 산담을 호계³⁾

민요 (a)를 읽으면 잠녀(潛女)가 되는 과정과 작업하는 과정이 드러난다. 열 다섯에 잠수 작업을 배우기 시작하여 평생을 그 일에 종사하면서 살아 왔다는 것, 스물 한 살이 되어서야 겨우 능숙한 잠녀가 된다는 것, 그렇게 시작된 잠수 작업을 위해 날이 선 비창을 허리에 차고 넓은 바다

2) 진성기, 『남국의 민요』(제주민속연구소, 1991), 130쪽.

3) 윗 책, 131쪽.

에서 작업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몹시 힘들다는 것이다. 잠수 작업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 일을 평생 해야 하는 그들의 처지와 정서가 소박하게 표현되어 있다.

민요 (b)는 바다에서 작업을 하면서 전복이나 소라를 잡아서 번 돈으로 생활을 하고 그나마 일부를 저축해 두었다가 죽은 다음에는 그 돈으로 무덤을 쌓고 용미제절을 놓고, 산담을 쌓겠다는 뜻을 표현하고 있다. 잠수 작업은 곧 그들의 생활이요, 죽은 후의 문제까지 해결해 줄 돈을 벌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소박하게 노래하고 있다.

이런 노래를 통해 잠녀들의 고된 잠수 작업을 하는 사정을 토로하고, 그런 사정을 되풀이 노래하면서 고된 작업의 고통을 잊으려 했다. 노래를 통해 마음 깊숙히 간직해 온 생활 감정을 밖으로 표출함으로써 일종의 정화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다.

(c) 큰 여으로 들엉 가가
 죽은 여으로 들엉 가가
 에헤에야 가나 보게
 큰 여으랑 가거들랑
 큰 궤나 만나지민
 죽은 여으랑 가거들랑
 우등통통 술진 줌복
 어풀어물 기염시민
 이 죽창을 쏘지 말곡
 솔짜 좃엉 농당 보경
 망시리만 ㄹ득허라
 날도 좋다 날도 좋다
 바당의서 씨원허게
 회염치명 놀아 보게
 허를 헤원 이 바당에
 큰 절이나 일지 말민
 물 소곰에 들멍 나멍

고운 걸랑 좇어 노왕
 우리 애기 방뒤 주마
 이디로도 바당 고개
 저디로도 먹들 고개
 고우머근 거칠고나
 이 엉장월 기여 들게
 기여 들건 금 케이나
 혼자 흥거 회염시라.⁴⁾

민요 (c)는 바다에서 잠수 작업하는 일을 노래하면서도 비교적 밝고 여유가 있는 노래다. 바다 밑 큰 바위 아래 살찌고 굵은 전복이 기어다 니고 있으면 그것을 손으로 잡아 망시리에 담기만 하면 된다는 낙천적인 생각이 드러나 있다. 그리고 날씨가 좋은 날은 바다에서 해염치면서 노는 것도 즐겁다는 것이다. 바람이 불지 않아 파도가 일지 않으면 바다 속에 들락날락하면서 소라 새끼 예쁜 것과 전복 새끼 예쁜 것을 주어가 가 귀여운 아이들의 장난감으로 주겠다고 밝은 생각을 노래한다.

이 민요는 바다에서의 잠수 작업이 고되고 힘들다고 하지 않고 기쁘고 즐거운 것으로 받아들이는 낙천적인 생각과 정서를 표출하고 있다.

(d) 씨아방은 구쟁기 녀이여
 나를 보민 새 들작 혼다.
 씨어명은 암춤 녀이여
 나를 보민 즈그똥 혼다.
 씨누인 고생이 녀이여
 나를 보민 호로록 혼다.
 서방님은 물꾸러 녀이여
 나를 보민 언주와 안나.⁵⁾

4) 김영돈, 『제주도민요연구 상』(일조각, 1965), 215쪽.

5) 진성기, 앞 책, 54쪽.

(e) “성님 성님 스촌 성님
 씨집살이 어뭇디가.”
 “아이고 애야 말도 말아
 구쟁기 닭은 씨아방에
 암퇘 닭은 씨어명에
 몽개 닭은 서방님에
 줄락 닭은 씨누이에
 이내 씨집 살젠 혼난
 고치장이 멬텡 혼덜
 내 씨집보단 더 매우라.”⁶⁾

민요 (d)와 (e)는 소박하지만 재미있는 작품이다. 바다에서 살고 있는 소라, 전복, 문어, 코생이, 줄락 등의 모양과 행태의 특징을 시집 식구들의 행태에 비유하여 노래하고 있다. 며느리를 마땅치 않게 여기고 얼굴을 마주치면 못마땅한 듯 표정이 굳어지고 혀를 차는 듯한 표정을 짓는 시아버지의 모습을 “세 들각 혼다”로 표현한 것이고, 며느리를 못마땅해 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즈그못 혼다”로 표현한 것도 경험을 통해 터득한 유사성을 표현한 것이다. 알미운 시누이가 코생이나 줄락으로 표현한 것도 재미있는 비유지만 가족들 모두 며느리를 마땅치 않게 여기는 데도 남편만은 문어처럼 바보스럽게 “나를 보민 언주아 안는” 문어와 닮았다는 표현은 뛰어난 표현이다.

이렇게 바다에서 살고 있는 해산물이나 어류의 특징을 생활 현장과 연결시켜 재미있게 표현한 민요는 바다 체험이 없고서는 나올 수 없는 문학이다. 민요는 잠녀들의 바다에서 체험했던 일을 바탕으로 그들의 생활과 처지와 심경을 표현하고 있다. 표현의 주체가 잠녀들이라는 점에서 기층민의 문학이며 평민의 문학이라고 할 수 있다.

6) 김영돈, 앞 책, 111쪽.

3. 고전문학 속의 바다

조선시대 제주 바다에서 체험했던 일들을 기록한 '漂海類'에 속한 글들이 꽤 있었다. 세조 때의 양성 일행의 『漂流記』, 성종 때 김비의 일행의 『漂流記』, 이섬 일행의 『漂流記』, 최부의 『漂海錄』, 숙종 때 고상영 일행의 『漂流記』, 영조 때 장한철의 『漂海錄』, 정조 때 이방익의 『漂海歌』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체험 주체가 제주인이고 현대의 독자들이 쉽게 읽을 수 있으면서 문학적 가치가 있는 작품은 장한철의 『표해록』과 이방익의 『표해가』이다.

소설로서는 유일하게 제주 바다를 건너는 정황을 그린 작품으로 『褻裨將傳』이 있다. 사또와 그 수하들이 제주 바다를 건너는 대목은 상상의 산물이지만 제주 바다를 다루었다는 데 흥미가 있다.

3-1. 『표해록』의 작가 장한철은 영조 때 현재의 북제주군 애월읍 애월리에서 출생한 사람이다. 1770년(영조 46년) 향시에 장원으로 합격하자, 여러 사람들의 권유와 관의 원조에 힘입어 그 해 12월 25일 과거를 보기 위해 제주에서 배를 탔다. 배가 본토에 가까워졌을 무렵 갑자기 태풍을 만나 바다에서 떠돌기도 하고 유구 열도의 어느 무인도에 표착했다가 다음 해(1771년) 1월 3일 안남의 상선에 의해 구조된다.

『표해록』은 이 때의 체험을 기록한 문학이다. 장한철은 안남의 상선에 의해 구조된 후 서울에 올라가 과거에 응시했으나 낙방하고 5월 초에 귀향하여 5월 말경에 이 작품을 쓴 것으로 되어 있다.

그는 4년 후인 1775년(영조 51년)에 과거에 합격하여 대정현감을 지내기도 하고, 강원도 취곡현령을 지내기도 했다. 그러나 언제 출생해서 언제 사망했는지는 알 수 없다.

이 작품은 한문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것을 정병욱이 한글로 번역하여 출판했다.⁷⁾ 이 작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영조 46년(1770년) 12월 25일. 일행 29명(선비 2명, 선원 10명, 장사꾼 15명, 육상(陸商)2명)이 제주항을 떠나 육지(본토=인용자)를 향해 떠난다.

(2) 해질 무렵에 육지로부터 약 70리 밖에서 폭풍우를 만나 망망 대해를 헤매게 된다.

(3) 바다 위에서만 3일을 표류하다가 12월 28일 새벽에야 겨우 어느 섬에 도착하였다.

(4) 섬 위로 상륙한 일행은 그 섬이 무인도임을 알고 선달 그믐날까지 사흘 동안 먹을 것과 썰나무를 구해다 놓고 그믐날 밤에 용왕에게 기도를 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갈 날을 기다린다.

(5) 절해 고도에서 맞는 정월 초하루 설날. 모두들 부등켜안고 통곡한다. 이에 장한철은 그들을 겨우 달래어 웃놀이를 시켰다. 이긴 편을 높은 바위 위에 앉히고 진 편을 발가벗겨 절을 하게 함으로써 웃겨보았다.

(6) 한낮쯤 되어서 배 한 척이 동쪽 바다 끝에 나타나 일행은 산 위에 올라가 불을 지르고 흰옷을 장대 끝에 매달아 구원을 청했다. 날이 거의 저물어서야 그 배가 가까이 오더니 10여 명이 종선을 타고 섬으로 내려왔다.

(7) 길고 검은 옷을 입었으나 아랫바지는 벗었고 허리에는 길고 짧은 칼을 꽂은 놈들이 달려들어 배에 있는 물건을 모조리 뒤져내고 일행의 옷을 벗긴 채 나무에 거꾸로 매달아두고 떠나버린다. 그들은 다름 아닌 왜구(倭寇)라는 일본의 해적단이었다.

(8) 이 섬에서 꼬박 나흘이 지났다. 정월 초이튿날은 서남풍이 몹시 불었다. 문득 서남쪽으로부터 배 두 척이 다시 나타났다. 앞서가는 배는

7) 장한철 지음, 정병욱 옮김, 『표해록』(범우사, 1979), 6~8쪽.

이미 섬을 지나쳐버렸고 가까스로 두번째 배가 섬 속에 사람이 있는 것을 알고 종선에 5명이 타고 와서 글로써 문답한 끝에 그 배가 안남의 상선임을 알았다.

(9) 구조를 청했더니 일본까지 데려다주겠다는 것이었다.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큰 배에 올라 배 안의 구경도 하고 서면으로 문답을 하면서 이틀이 지났다.

(10) 정월 초닷새, 새벽에 보니 멀리 한라산이 보였다. 고향 산천을 다시 본 일행이 일시에 통곡을 터뜨리니, 안남인들 80여 명이 중국계 상인들과 대치하여 험악하게 구는 것이었다. 이유인즉 옛날에 탐라국 왕이 안남 태자를 살해한 일이 있었는데 이제 안남인의 원수인 제주도 사람들을 만났으니 원수를 갚겠다는 것이었다. 원수끼리 같은 배를 타고 갈 수는 없으니 헤어지는 수밖에 없었다.

(11) 안남 상선의 밀창에 싣고 오던 배를 타고 다시 망망대해에 버려졌다. 정월 초엿새. 바람과 비가 불어닥치는 날씨였다. 새벽이 되어보니 배는 이미 제주도를 훨씬 지난 서북에 와 흑산 앞바다를 달리고 있었다. 하루종일 바람에 밀려 남해안을 방황하다가 저녁 무렵에는 눈보라로 변한 날씨가 더욱 험해졌다. 하늘을 찌르는 물결 속에서 조리질하는 배에 실려는 있으나 정신은 이미 생사의 갈림길을 방황하고 있었다.

(12) 조그만 들섬에 배가 부딪쳐 속절없이 죽을 고비를 몇 번이고 넘긴 끝에, 높은 산이 눈을 가로막아 이제는 육지에 가까이 왔구나 하고 마음을 놓는 순간에 배가 바위에 부딪히자 많은 사람들이 물 속으로 뛰어 들었다. 겨우 정신을 수습하니 몇 사람이 겨우 물으로 올라갈 수 있었다.

(13) 마을 사람들의 구조로 일행을 챙겨보니 19명은 물에 빠져 죽고 겨우 살아 남은 10명 중 다시 2명이 절벽에서 떨어져 죽고 끝까지 살아 남은 사람은 8명뿐이었다.

이 작품을 읽으면 조선시대 제주 바다의 여러 정황을 알 수 있다. 고래가 출몰했다는 것, 때로는 지나다니는 배들을 위태롭게 했다는 사실도

알 수 있고, 오키나와까지 배가 표류했었다는 사실도 드러난다. 낯선 사람들과 한자를 매개로 筆談으로 의사를 소통했었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그리고 과거의 제주도 사람들이 안남 사람들을 괴롭힌 일도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배를 타고 왕래하면서 바라보았던 바다의 모습과 그것을 바라보는 심경도 알 수 있다.

(a) “저게 바로 고래구나. 고래. 큰놈은 배를 삼키고, 작다 해도 능히 배를 뒤엎을텐데.... 저 놈하고 부딪히는 날이면 볼장 다 보겠네. 다 봐. 아이구, 이를 어찌노.”

하며 안절부절못하여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그 큰 고래는 아랑곳없다는 듯이 몸을 뒤척이니 물결이 치솟으며 내뿜는 물은 비처럼 쏟아져 내린다. 한번 훌쩍 몸을 날리더니 서쪽을 향해 뱃가를 스치듯 지나가니 물결은 덩달아 길길이 일어나고, 돛대는 꼭 자빠지는 것 같다. 뱃사람들은 모두들 흠뻑이 되어 뱃바닥에 꿰어 엎드리고서는 관음보살만 부지런히 외우기를 그치지 않는다.

(b) 동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는 바람에 몰리어 서쪽 바다 밖으로 떠내려 나간다. 노도를 돌이켜보는 것도 잠깐뿐, 다시 푸르고 가이없는 바다가 눈앞에 전개된다. 사나운 바람, 성난 파도. 외로운 배는 솟았다 갈앉았다 하는데, 높이 솟을 쟈 마치 하늘 위에 오른 듯하고, 내려갈 때엔 밀도끝도 없는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듯하다.

배에 탄 사람들은 노도에서 바람을 만난 뒤부터는 모두들 살아날 길이 없으리라고만 믿었던지 뱃멀미로 까무라쳐 정신을 잃은 사람이 아니면, 다만 슬피 부르짖고 통곡할 따름이다. 밤은 이미 캄캄하여 동서를 분별할 수가 없는데 바람은 까불어대고 비는 마구 퍼붓고 배는 풍랑에 들볶인다. 배 밑으로 는 사정없이 물이 새어 들고, 배 위엔 억수같이 비가 쏟아진다. 배 안에 고인 물은 이미 허리까지 차게 되어 물에 빠져 죽을 재화가 시각을 다투는데, 뱃사람들은 배에 고인 물을 퍼내려 하지 않는다. 애써 퍼내보아야 별수없이 죽으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꼼짝도 않고 자빠져 있을 뿐이다.

(a)는 항해도중 고래를 만나 위태로웠던 경우이고, (b)는 폭풍우에 배

가 바다에 떠밀려 바다 위를 떠돌 때의 정황을 기록한 것이다. 이 기록들을 읽으면 조선시대 사람들이 선박을 타고 본토와의 갔다왔다 하는 모습이 드러난다. 동시에 그런 정황의 기록은 오늘날의 독자들에게 흥미를 주고 호기심을 채워준다.

3-2. 『표해가』의 작자인 이방익은 1757년(영조 33년) 제주에서 출생했다. 그는 무과출신 집안에서 태어나 1784년(정조 8년) 28세에 무과에 급제했다. 40세가 되는 해인 1796년(정조 20년) 9월에 제주 앞바다에서 표류하여 다음해 윤 6월 4일 의주에 도착하기까지의 과정을 기록한 것이 이 작품이다. 그러나 언제 창작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⁸⁾

이 작품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앞부분은 제주도에서 팽호도에 표류하는 과정이 기록되었고, 뒷부분은 팽호도에서 의주에 도착하기까지의 과정을 기록했다. 제주 바다와 관련된 것은 앞부분이다.

(가) 이 방익은 40세 때인 1791년 9월 21일 선원 일곱 명과 함께 仙遊하기 위해 바다로 나갔다.

(나) 배는 풍선이었고 바람 따라 멀리 나아갔다.

(다) 5, 6일은 바람 부는 대로, 물결치는 대로 떠다녔는데 그 때 멀리 섬이 보였다.

(라) 일본이라고 생각하고 다가가려는데 바람이 일어 배는 바다로 떠밀려 가고 바다에 표류하게 된다.

(마) 때마침 한 자가 넘는 고기가 배 위로 뛰어올라 선원들과 함께 그 고기를 날로 먹으면서 허기를 채웠다.

(바) 10월 4일 바다로 나온 지 14일만에 지금껏 보지 못했던 큰 섬에 닿았다. 이방익과 7인의 선원들은 섬에 상륙했으나 그들이 타고 왔던 배는 파선되고 말았다.

8) 성무경, “탐라거인 이방익의 <표해가>에 대한 연구” 『탐라문화』 제12호(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2) 5쪽.

(사) 그들은 섬 안으로 들어갔다. 마침 사람들이 있었으나 말이 통하지 않아 입을 벌이고 배를 두드리며 시늉을 하자, 그들은 미움을 쏘어주고 젖은 옷을 말려 주었다.

(아) 하룻밤 지난 후에 밖을 보니 큰 건물에 현판이 걸려 있었다. 그래서 필담이 시작되었다. 그들이 표착한 곳은 福建省 澎湖府였던 것이다. 이 작품은 제주도민의 바다를 왕래하면서 겪었던 일들을 기록했다. 그 가운데서도 다음 인용문들은 흥미가 있다.

(a) 秋景을 사랑하야 船遊하기 期約하고 茫茫大海 潮水頭에 一葉漁艇을 나타나 李有甫等 일곱船人 차례로 조차고나 風帆을 놓히달고 바람만 조차가니 遠山에 빗긴 달이 물가운데 비치었다. 靑紅錦緞 千萬匹을 匹匹히 햇머린듯 하늘인가 물빛인가 水天이 一色이라 陶然이 醉한後에 船板치며 즐기니 西北間 一陣狂風 忽然이 이러나니 泰山갓흔 昏昏물결 하늘에 다랐고나 舟中人이 慌忙하야 措手할것 잇을소냐 나는새 아니어니 엇지살기 바라리오 밤은 漸漸 깊허가고 風浪은 더욱甚타 萬頃蒼波 一葉船이 가이업시 썩더나가니 슬푸다 무삼罪로 下直업는 離別인고 一生一死는 自古로 例事로대 魚腹속에 永葬홈은 이아니 冤痛한가 父母妻子 우는舉動 싱각하면 목이맨다 죽기는 自分하나 飢渴은 무삼일고 明天이 感動하사 大雨를 나리시매 매뚝디 안고 우리러 落水를 먹음으니 渴한것은 鐵定하나 입에서 성에나네

(b) 大洋에 飄蕩하야 물결에 부침하니 하늘을 부르즈저 죽기만 바라더니 船板을 치는소리 귀가에 들니거늘 물결인가 疑心하야 蒼黃이 나가보니 자넌 검은고기 舟中에 썩여든다. 生으로 토막잘나 八人이 노나먹고 頃刻에 쓴을목숨 힘입어 保全하니 皇天에 주신겐가 海神에 도움인가 이고기 아니라면 우리엇지 살엇스리

(a)는 배를 타고 놀러 나가 배에서 술을 마시고 바다의 아름다운 광경을 즐기다가 풍랑을 만나 위험한 고비에 이르렀을 때의 정황을 그린 대목이고, (b)는 고기가 배 위로 뛰어 들어 그것으로 배고픔을 달렸다는 재미있는 이야기다. 마실 물이 없을 때 빗물로 해갈을 했는지 배 위로

뛰어 들어온 고기를 날로 먹으면서 배고픈 것을 견뎠다는 기록들은 꽤 흥미있는 대목이다.

이 작품은 바다의 위험을 기록한 작품이고, 항해의 어려움을 다룬 작품이다.

3-3. 「배비장전」은 판소리의 하나인 〈배비장타령〉을 소설로 개작한 작품이다. 작자와 연대는 미상이나 조선시대 후기에 나온 작품이다.

소설의 내용은 한양(서울)에 사는 김 경이 제주 목사로 발령을 받고 제주로 내려오게 된다. 그 때 목사를 수행하기 위해 배선달(배비장)도 따라오게 되는데 그는 어머니와 아내 앞에서 절대로 여자에게 빠지지 않겠다고 약속한다. 서울에서 육로를 거쳐 다시 배에 오르자 풍랑에 시달리며 겨우 제주에 도착한다. 살았다는 기쁨과 더불어 일행은 제주에 여장을 풀자 기생 점교를 하고 기생들과 질탕하게 어울린다. 그는 그런 관리들을 보면서 못마땅해한다.

그러자 목사는 아래 사람들을 시켜 배비장이 정말로 여자를 좋아하지 않는지 시험하게 한다. 그래서 제주 기생인 애랑을 시켜 배비장을 유혹한다. 처음에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 애랑의 꾀에 넘어가 유혹에 빠져 발가벗은 몸으로 사람들 앞에 나서게 되는 어이 없는 일을 저지른다. 양반들의 위선을 폭로한 풍자소설이다.

이 소설에서 본토(육지)에서 제주로 넘어오는 과정에 풍랑이 일어나자 배에 탔던 목사 일행이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 다음 대목에 드러난다.

사도 취중에 회담한다.

“누구서 제주 배 타기가 어렵다 하더니, 누어서 떡 먹기는 눈에 고물이나 떨어지고 앉아서 똥 누기는 발 허리나 시지, 내 서울서 들으니 바다의 꼬리 큰 고기가 있다 하니 그 말이 옳으나?”

사공이 여짜오되,

“수령개울 방축(防藥)못도 지킨 영신(靈神)이 있다 하니 증지바다를 건너 가오면서 취담을 마옵소서”

그 말을 맞지 못하여 머역섬을 바빠 지나 추자도(楸子島)를 다달으니 상하 바다물 꼬리 중수하여 건너갈제 동정서망 초강분(洞庭西望楚江分)하니 수진남천 불견운(水盡南天不見雲)을 해색(海色)은 접천(接天)한데 난데없는 태풍이 줄지에 일어나며 사면이 침침 물결이 왈랑왈랑 태산같은 몰마루가 뒤치어 우러렁 쿵쿵 펄펄 뒤등굴러 물결이 펄펄 배전을 따리고 바람에 띠집도 조각조각 흩어지며 키다리 꺾어져 용출줄 마루대가 동강동강 고물이 번듯 이물로 숙여지고 이물이 번듯 고물로 숙여져 덩빙 뒤뚱 조리(笊籬) 질치니 샷도 정신 놓고 비장 하인 분주하게 덩빙일제 샷도 사공을 부르되 겹결에 고공(雇工)아 부르니 사공도 겹결에 떨며 그대로 예 예 하니 샷도 그중에 노하여 이른 말이,

“이놈 양반은 수로에 익지 못하여 떨거니와 수로에 익은 놈이 저대치 떠는다.”

사공이 더욱 공동(恐動)하여 여쭙는다.

“소인이 십오세부터 화장으로 배에 올라 흑산도(黑山島) 대마도(對馬島) 칠산(柒山) 연평(延平) 바다를 무른며주 밭듯 다녔으되 이런 경난은 처음이요. 지부왕(地府王)이 삼촌 강림사자(降臨使者)가 적삼촌(績三寸)이요 사해용왕이 외삼촌이라도 살아 보기는 극난이요, 살라 하오면 이 물을 다 먹어야 살듯 하오니 뉘 배로 다 먹겠소.”

이렇듯 황겁할제 비장들도 서로 운다.

배를 타본 경험이 없는 목사가 처음에는 배를 타는 일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이나고 떠들다가 풍랑이 거세지자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몹시 공포에 떠나는 것이다. 갑자기 태풍이 일어나 물결이 거세게 일렁이는 정황을 <물결은 왈랑왈랑 태산같은 몰마루가 뒤치어 우러렁 쿵쿵 펄펄 뒤등굴러……>라고 표현한 것은 그 당시의 문학에 나타난 바다의 정경 묘사다.

이 소설에서도 바다는 위험한 곳, 죽음을 연상케 하는 곳이라고 그려져 있다.

장한철과 이방익은 양반계급에 속한 인물들이다. 『표해록』은 서울로 과거를 보러 가다가 표류했던 일을 기록한 것이고 『표해가』는 이방익 일

행이 '船遊하기' 위해 배를 타고 나갔다가 표류했던 체험을 기록한 작품이다. 작가들 스스로 체험했던 일을 쓴 것으로 항해의 위험을 기록한 작품들이다.

『배비장전』은 虛構다. 상상을 통해 항해의 어려움을 쓴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고전문학에 나타난 제주 바다는 항해 도중에 일어난 일을 기록한 것으로 생업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구비문학에서 볼 수 있는 삶의 현장, 삶의 터전으로서 제주 바다를 그리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드러난다.

4. 현대문학 속의 바다

현대문학에서 바다에 얽힌 문제를 다룬 작품들이 상당수 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쉽게 찾아 읽을 수 있는 작품들은 다음과 같다.

- 강금중: 혈맥(1972).
- 고시홍: 흔들리는 이어도(1980).
- 오경훈: 우도(1974), 세월은 가고(1989).
- 오성찬: 어부들(1971), 운명의 바다(1996).
- 한림화: 불턱(1993), 벗(1993).
- 현기영: 바람 타는 섬(1989).
- 현길언: 껍질과 속살(1986).

이 소설들은 바다를 터전으로 살고 있는 어민들 - 어부와 잠녀(潛女)들의 세계를 다룬 작품들이다. 그러면서도 바다를 다루는데 있어서 시각의 차이가 있다.

4-1. 강금종의 「혈맥」은 일제 말을 배경으로 씌어진 소설이다. 고향인 제주도를 떠났다가 귀향하면서 소년시절 바다에서 뛰놀았던 정경을 회상하고 있다. 바다에서 뛰놀던 정경을 회상하는 만큼 바다는 낭만적으로 묘사돼 있다.

(a) 그의 고향은 제주도, 고향이랬자 말뿐이었지 고향엔 부모 처자도 없는 혈육이란 동생 석이(石二)뿐이다(중략) 석홍은 오랜 시간을 망설이다 결국은 동생이 살고 있는 고향으로 가길 결심했다. 부모처자나 집 한 채 없어도 고향은 다정한 것. 그는 고향을 가기 위해서 제주행 부두가로 갔다. (중략) 석홍은 해안지대를 몇 차례 오가다 배를 탔다. 뱃고동은 먼 전설을 일깨우듯 부두가에 퍼져 울리며 동시에 뱃머리는 조심스레 바다로 미끄러져 나간다. 무심한 갈매기들은 배 위를 오락가락 내려를 치다가 멀리 사라져 버린다. (중략)

석홍은 뱃머리에 기댄 채 떠나온 고향산천을 조심스레 더듬는다.

여름이면 쌍돛대 높이 단 고깃배에 몸을 싣고 망망한 창파를 해매이던 시절 은빛 같은 모래알, 풍만한 해녀의 휘파람 소리.

(b) 여름이면 쪽배에 몸을 싣고 어찌면 자기만의 왕자인 양 망망한 바다를 해매던 일이라든가, 모래 위를 뛰고, 덩굴고, 또는 씨름판을 벌여 누기누가 장사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도(중략).

구릿빛에 흡사한 건강하고 풍만한 몸집의 해녀들은 곡예사 그대로 갖지 재통을 구사하고, 파도는 춤을 추고, 갈매기는 노래하고(중략) 어디선가 은은히 들려오는 목동의 피리 소리에 소년의 가슴은 마냥 부풀어 낭만은 무르익어 가고.

(a)는 소설에서 인용한 것이고 (b)는 그의 수필 「귀향」에서 인용한 것이다. 내용이 비슷하다. 결국은 그 자신의 소년시절 체험했던 일들을 회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강금종(1917~1991)의 고향은 제주시 삼양이다. 삼양은 모래가 있는 해수욕장이 있는 곳이다. 그는 어린 시절 그 해수욕장에서 놀았던 경험이 있다. 십대 후반인 1930년대에 일본으로 건너갔고, 해방되던 해에 귀

국해서 충청남도 조치원에 정착했다. 때문에 그가 제주 바다에 대한 인식은 1930년대 그가 소년시절에 보았던 제주 바다다. 그것은 생업과는 관련이 없는 삼양 해수욕장에서 뛰놀았던 일이다. 따라서 어민들의 바다에서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을 제대로 이해하기 전에 즐겁게 바다에서 뛰놀았던 정경이 오래도록 그의 기억에 남아 있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문학에 반영된 제주 바다는 소년시절의 추억 속의 바다다. 따라서 바다는 낭만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그것을 그의 문학에 반영시킨 것이다. 제주에서 소년시절을 보냈던 사람들의 체험과 크게 다르지 않는 정경을 소설에 담고 있다. 그것은 회상으로서의 제주 바다다.

4-2. 오성찬의 「어부들」과 「운명의 바다」는 바다에 나가 고기잡이를 하면서 살아가는 평범한 어부들의 이야기다. 어부들은 바다에 고기잡이를 가면서도 늘 두려움을 느낀다. 그것은 언제 풍랑이 일어나 파선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것은 죽음에 대한 공포를 동반한다. 그렇다고 바다에 나가지 않을 수도 없다. 바다에 나가지 않으면 생계를 이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어부의 세계가 오성찬의 소설에 드러난다.

(a) 한나절을 노 저어 한라산 봉우리가 까마득히 보이는 먼바다까지 나간 그들은 저만큼씩 낚시줄을 드리웠다.

“심심해도 난 잡고기 낚긴 싫고 갈치나 낚을로고.”

허 장이는 난데없이 내년부터 갈치 낚시를 한다고 망발이다. 갈치란 놈이 낮에 몰릴 턱이 없다는 것은 사십여 년을 바다에서만 산 그가 모를 리 없다.

“늑어가니까 아메야 허 장이도 노망기가 드는 모양이라.”

그런 그를 보고 잡고기 낚시줄을 드리우고 앉았던 두규가 시큰둥하게 한마디 했다.

방홍과 두규는 어랭이, 술맹이이, 북바리, 이런 고기들을 여남은씩 잡을 때까지 허 장이는 한 마리도 못 낚고 연방 하늘을 쳐다보며 담배만 빨고 있었다.(중략)

노를 저어 얼마큼 오는데 갑자기 소나기 한바탕 휘뿌리고 지나가더니 하늘이 구름에 덮히고 하늘과 바다가 음산한 기운에 싸여 버렸다.

(b) 환갑이 넘도록까지 배 세 척을 켈리우며 바다에서 살았던 아버지는 예순 세살이 나던 해에 결국 바다에서 돌아가셨다. '보재기 삼대면 조상을 바당에 눕힌다' 더니 할아버지의 뒤를 이은 바다에서의 순사였다.

바다에서 폭풍을 만나 황급히 주낙을 거두고 들어오던 어선이 새끼청산 가까이 포구까지 거의 왔을 때 산 위로 넘어친 회오리바람, <잔내미>가 배를 아주 덮어버렸던 것이다. 연안 가까이 와서 파선했기 때문에 배에 탔던 네 사람은 모두 헤엄쳐 나오기는 했으나 워낙 파도가 높아 짧은 한 사람을 제외하고 세 사람이 모두 액장을 당한 것이었다. 그나마 가족들에게 다행스런 것은 시신이나마 거둘 수 있었던 것이었다.

(a)는 제사를 앞둔 어부가 제수에 쓸 고기를 잡으러 다른 어부들과 바다에 나간 이야기다. 세 사람이 타고 간 배인 만큼 아주 작은 배다. 그들은 노를 저어 한라산 봉우리가 까마득히 보이는 데까지 바다로 나아가 낚시질을 한다. 그날 따라 고기도 잘 잡히지 않았다. 돌아오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퍼붓고 바람이 불어 위험한 지경에 빠진다는 이야기다. 이 어부들의 인식하는 바다는 생활의 터전임과 동시에 죽음을 연상케 하는 곳이다.

(b)는 삼대가 바다에서 살아온 이야기를 다룬 소설이다. 할아버지가 바다에서 고기잡이를 하다가 돌아갔고, 아버지도 바다에서 돌아간다. 그러므로 이들에게도 바다는 삶의 터전인 동시에 죽음을 부르는 무서운 곳이다. 언젠가는 죽을 것을 각오하고 바다로 나가는 사람들- 고기를 잡아야 살아갈 수 있고 그 일을 하다가 죽어 가는 제주 어부들의 삶의 모습이 이 소설에 드러난다.

오성찬의 소설들은 바다와 얽히면서 살아가다 바다에서 죽어 가는 사람들의 세계를 다루고 있다. 일종의 어민(漁民)소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3. 고시홍의 「흔들리는 이어도」, 오경훈의 「우도」, 한림화의 「벗」 등은 제주도 잠녀(잠수:해녀)들의 세계를 다룬 소설들이다. 이 소설들은

잠녀들이 일상적으로 바다와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바다에 나아가 해산물을 채취하고 그것으로 생업을 삼고 있으면서도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인간의 문제를 다룬 소설들이다.

「흔들리는 이어도」는 바다에서 남편을 잃고 혼자서 물질(잠수작업)하면서 살아가는 이야기이고, 「우도」는 우도 출신 남자를 따라 제주도까지 흘러 들어와 잠수 작업을 배우는 일본 여인의 이야기다. 그리고 「벗」은 부부가 어부와 잠녀인 두 집의 이야기다. 남편들은 들어서 함께 고기잡이를 다니고, 아내는 들어서 바다에 나아가 해산물을 채취한다. 제주도 어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다. 두 집 부부는 무척 친하게 지낸다. 그런 어느 날 바다에 나갔던 두 어부 가운데 한 사람이 죽고 말았다. 살아 돌아 온 어부는 죽은 친구가 몹시 아까웠고 친구의 아내가 힘든 일을 할 때 열심히 도와준다. 남편이 하는 일이 자기 친구의 일을 도와주는 일이기도 해서 아내는 동네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것도 처음에는 가볍게 여겼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과 친구가 가까운 관계로 발전하자 갈등을 벌인다는 이야기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남편들은 바다에서 죽고, 아내는 그런 바다에 나아가 해산물을 채취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세계를 다루고 있다. 「흔들리는 이어도」의 아내의 처지와 심경은 그런 여인들의 세계를 드러낸다.

돈 나올 구멍이라곤 이승과 저승의 문턱, 바다밑의 설드러밖에 없다. 민고 의지할 곳이라고는 숨통을 뒤통박 하나에 저당 잡혀 놓고, 해물을 건져낼 수 있는 바다 속의 토지뿐이다.(중략) 바다만 숨기척을 하지 않는다면 돈은 등짐으로 지어 나를 수 있을 것 같았다. 우뚝가사리, 미역, 소라, 전복...이 모두가 역순이에게 있어선 금은보화였다. 열 개의 발가락으로 하늘을 걷어차며 물 속으로 곤두박질 칠 때마다 숨통이 부어오는 고통이 따를 망정, 바다에서 거뒀다는 것들은 김을 매지 않아도 되고, 비료값 걱정을 할 필요도 없기에 더욱 소중한 보물이었다.

이 인용문에 드러난 것처럼 주인공 역순이는 자연의 재해(풍랑 등)만 없으면 언제든지 바다에 나아가 바다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 바다가 조용하기만 한다면, 남편을 빼앗을 때처럼 풍랑이 일지만 앓는다면 언제든지 바다에 나아가 해산물을 채취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녀가 걱정하는 것은 자연의 재해이지 다른 것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평범한 잠녀들의 바다와 더불어 살아가는 이야기가 이 소설이다.

4-4. 현기영의 『바람 타는 섬』, 현길언의 「껍질과 속살」, 오경훈의 「세월은 가고」, 한림화의 「불턱」 등은 잠녀들의 세계를 다룬다는 점에서는 위에서 살핀 소설들과 비슷하다. 그러나 그들은 자연의 재해에서 오는 불행이 아니라 역사와 더불어 외부세력이 그들의 삶에 끼어 들면서 생기는 갈등을 다룬 소설들이다.

『바람 타는 섬』은 1930년대 초 구좌면(현재의 구좌읍) 하도, 세화 일대의 잠녀들이 그 당시 해녀조합을 책임지고 있었던 제주도사(濟州島司)를 향해 항의 시위를 벌인 역사적 사실을 다룬 소설이다. 잠녀들이 채취한 해산물을 일본인 상인에게 값싸게 불하한다든지 조합비를 과다하게 징수하는 등 잠녀들의 생존에 타격을 주는 일들을 일본인들의 중심인 해녀조합에서 자행했다. 이에 잠녀들의 항의 시위를 벌였는데 앞장 서기는 잠녀들이 섰지만 뒤에서 부추기는 세력들이 있었다. 야학을 통해서 잠녀들을 의식화했던 좌익세력 또는 민족주의 세력이다. 그러므로 이 소설에 나타난 잠녀들은 그녀들을 착취하는 조합 간부(주로 일본인)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시위를 했고 그 때문에 일경에 체포되어 징역형을 받는 등 고통이 따른다.

「껍질과 속살」도 잠녀들의 생활 터전인 제주 바다에 일본 잠수기선들이 들어와 해산물을 남획하는 바람에 이에 분노한 잠녀들이 잠수기선을 불태우는 등 시위를 벌여 그 때문에 일경에 체포되어 징역형을 받는 등 고통이 따랐다는 이야기다. 그 점에서는 『바람 타는 섬』과 맥락을 같이 한다. 그러나 그 시위가 항일 운동의 일환이나,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었느냐에 시각이 차이가 있고, 배후 세력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도 시각

의 차이가 있다. 전자가 항일의 성격이 있다고 본 대신 후자는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었다고 보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다루면서도 상당부분 잠녀들이 바다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그려져 있어 제주 바다가 제주 어민들에게는 삶의 터전이라는 강한 메시지를 드러낸다. 자연의 일부로서의 바다라기보다 생활의 현장, 삶의 터전이 제주 바다라는 것이다. 그들은 바다에서 일하고 바다를 건너 멀리 일터를 찾아 배를 타고 제주 바다를 건너간다. 그것이 잘 드러난 것이 『바람 타는 섬』이다.

배가 하도 마을 앞 바다를 벗어나 탁 트인 넓은 바다로 들어서자 마파람이 막힘 없이 뿔뿔 불어왔다. 바람세가 세지자 배들은 더욱 빠르게 질주했다. 바람을 잔뜩 먹은 쌍돛은 예기 뻗어 아낙의 배처럼 붓고 뚝 밑으로 팽팽하게 당겨진 아릿줄에서 연상 피용피용 거문고 뿔기는 소리가 났다. 바다에 흰모래 깔린 연두색 바다도 지나고 물새 똥이 하얗게 깔린 작은 바위섬도 지나갔다. 흰 물거품을 튀기며 사납게 솟구치는 잔 파도들은 육지가 멀어질수록 통이 굵어지고 움직임도 완만해져 마치 거대한 구렁 배암 꾸물거리듯이 능실능실 굽이쳤다. 배는 쟁기 보습으로 무른 땅을 갈아엎듯이 뱃머리로 흰 물결을 가르며 경쾌하게 파도를 뒀다. (중략)

해마다 철새들이 이동하는 음력 삼월 초가 되면, 제비는 돌아오고 기러기는 떠나는데, 이 때에 제주의 잠녀들도 철새가 되어 제주 바다를 건넌다. 온 섬의 백여 개가 되는 해촌의 일만 잠녀들 중 약 삼천 명이 육지 물질을 나가는 것이다.

제주도 잠녀들은 제주도내에서만 일했던 것이 아니라 한반도는 물론 일본과 중국까지 진출했고 멀리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까지 진출하기도 했다. 적극적으로 삶의 터전을 찾아 바다로 나가는 이야기가 이 소설에 그려져 있다. 그러므로 이들 소설에서는 바다는 자연의 일부라기보다 농민들에게 토지와 같은 것, 노동자들에게 공장과 같은 곳이다.

현대문학-현대소설에 나타난 바다는 삶의 터전으로서의 바다가 주류를 이룬다. 바다는 제주도 어민들의 생활터전이고, 바다와 더불어 살아

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제주의 고전문학에서 다른 바다가 항해의 어려움이라는 데 모아졌다면 현대소설의 경우는 삶의 현장이라는 것으로 바다를 의식하고 형상화했다.

5. 맺음말

제주 바다는 구비문학, 고전문학, 현대문학의 소재가 되고 있다. 그것은 제주 바다가 제주 사람들의 삶과 깊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구비문학인 설화나 민요에 나타난 제주 바다는 세 가지 양상으로 나온다. 첫째는 제주 바다가 제주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라는 것이다. 민요에 그것이 두드러지고 설화에 있어서도 「절부암」, 「김덕이 여」 등에 그것이 나타난다. 둘째는 죽음의 세계로 인식하고 있다. 「송당본풀이」, 「칠성본풀이」, 「차사본풀이」 등에 그것이 드러난다. 「송당본풀이」는 불효 자식을, 「칠성본풀이」는 不貞한 딸을 응징하기 위하여 자식들을 바다로 내몰았다는 이야기다. 셋째는 이상세계로 인식한다. 「산호잡녀전설」은 병으로 고통받는 일이 없는 세계를, 「세화당백जू도본풀이」는 비와 바람에 시달리는 일이 없는 세계로 설정하고 있다. 질병이나 비와 바람은 옛날부터 제주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들로부터 해방된 세계를 열망한 나머지 그런 상상을 설화로 만들어냈던 것이다.

고전문학인 장한철의 「표해록」과 이방익의 「표해가」는 제주 바다를 항해하다가 풍랑을 만나 낯선 땅에 표류했다가 귀환한 이야기다. 이야기의 중심이 거친 제주 바다와 풍랑에 얽힌 이야기이기 때문에 항해의 어려움을 다룬 것이다. 예로부터 제주도 사람들은 본토와의 왕래에 배를 이용했다. 그래서 본토와 왕래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그것이 이들 작품에 표현되어 있는 것이다. 작자 미상인 「배비장전」은 작가가 제주 사람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이 작품도 제주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죽을 고비를 넘겼다는 대목이 나온다. 말하자면 제주 바다는 풍

량이 많은 바다로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곳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드러난다. 고전문학의 작가들은 양반계급 사람들인 것 같다. 때문에 민요나 설화의 담당층과는 다르다. 그들은 제주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은 사람들과는 달리 항해의 체험을 작품으로 남겼다는 점이 구비문학과 다르다.

현대문학—그 가운데서도 현대소설에서는 제주도의 기층민중인 어민들의 삶을 폭넓게 다룬 이야기가 주류를 이룬다. 어민들인 어부나 잠녀들의 생활을 관찰하고 그들과 바다와의 관계를 기록한 것이다. 이런 소설들에 드러난 제주 바다는 첫째 제주 바다가 제주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라는 것이다. 어부들은 고기를 잡고 잠녀들은 해조류를 캐면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바다에서 작업을 하다가 죽어 간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이것은 제주 사람들의 삶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그런 점에서 현대문학은 구비문학과 맥락이 닿아 있다. 그것은 민중들의 삶을 다루었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다.

제주 바다를 다룬 문학은 제주 사람들의 체험을 반영한 것이다.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살다가 때로는 바다에서 죽어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주류를 이루는 것은 것을 말해준다. 따라서 문학과 체험과의 관계는 여기서도 확인된다.

참고문헌

<자료>

1. 구비문학

김영돈, 『제주도민요연구·상』, 일조각, 1965.

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1985.

진성기, 『제주도 전설』, 태백, 1991.

진성기, 『남국의 민요』, 제주민속연구소, 1991(1958 초판).

현용준, 『제주도 신화』, 서문당, 1976.

현용준, 『제주도 전설』, 서문당, 1976.

『제주도 전설지』, 제주도, 1985.

2. 고전문학

이방익, 「표해가」 『탐라문화』 제12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2.

장한철 지음, 정병옥 옮김, 『표해록』, 범우사, 1979.

『배비장전』 『한국고전문학전집 1』, 세종출판공사, 1970.

3. 현대문학

강금중, 소설집 『먼 여로』, 월간총청사, 1972.

고시홍, 소설집 『대통령의 손수건』 전예원, 1987.

오경훈, 소설집 『유배지』, 신아문화사, 1993.

오성찬, 소설집 『탐라인』, 창원사, 1976.

현기영, 『바람 타는 섬』, 창작과비평사, 1989.

현길언, 소설집 『닿아지는 세월』, 문학과지성사, 1987.

『제주문학』 29호, 한국문인협회 제주지부, 1996.

<논저>

성무경, “탐라거인 이방익의 <표해가>에 대한 연구” 『탐라문화』 제12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2.

윤치부, 『한국 해양문학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2.

현용준, 『무속신화와 문헌신화』, 집문당, 1992.

『한국 해양문학』 특집, 동서문학, 1995년 겨울호.

『바다와 섬, 문학과 인간』, 『문예 2000』 1999년 여름호.